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아동 적응: 부모의 정서 및 양육 방식을 중심으로*

Received: July 15, 2022
Revised: August 16, 2022
Accepted: August 22, 2022

이정윤¹, 이우열², 송현주³, 차민정¹
연세대학교 소셜오믹스 연구센터/ 연구교수¹,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²,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³

교신저자: 차민정
연세대학교 소셜오믹스
연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산학협동관 320호

Children's Adjustment i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Parents' Emotional States and Parenting Practices

E-MAIL:
youhear1@hanmail.net

Jung Yun Lee¹, Woo-yeol Lee², Hyun-joo Song³, Minjung Cha¹
Institution of Socialomics, Yonsei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¹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²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Professor³

* 본 연구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8S1A3A207
5114).

* 이 논문은 2022년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nd Smart
Computing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pyright 202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부모의 정서 상태 및 양육 방식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품행 문제와 같은 아동의 부정적 적응 상태, 계획된 일과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과 같은 아동의 긍정적 적응 상태,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불안과 우울, 양육 고통,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구체적 양육 방식과 같은 부모 관련 변인이 측정되었다. 자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집되었으며, 아동의 부모가 자기보고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의 긍정적 적응은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불안과 우울, 양육 고통, 양육 방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 방식 중에서도 초점적, 체계적 양육이 특히 아동의 긍정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에서 아동의 안녕감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지침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코로나19, 불안, 우울, 양육 고통, 양육 방식, 아동 적응

2019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전 세계로 확산된 지 3년 만에 4억 명 이상의 환자와 6백만여 명의 사망자를 양산하며(질병관리청, 2022) 인류의 삶을 뒤바꾸어 놓았다. 특히 치명률이 높았던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는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의 정부가 학교 및 업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하였으며,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중국,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의 외출 및 이동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팬데믹은 수많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였다(Romero et al., 2020, Wang et al., 2020).

감염병의 확산과 이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들은 개인의 건강 및 재정 상황, 노동 환경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크게 뒤바꾸어 놓았는데, 특히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다. 학령 전 아동의 교육 기관 및 학교가 대면 수업을 금지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던 기관들이 폐쇄되면서 자녀 돌봄의 부담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되었고, 이는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가구는 물론이고 외벌이 가구 모두에서 양육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다(은기수, 2020; 최윤경, 2020). 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으며 높아진 가정 재정 상황의 불확실성은 자녀를 가진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Prime et al., 2020).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는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 theory; Bowen, 1978)에 따르면, 한 가족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간 관계를 포함한 전체 가족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경험적

연구들은 불리한 환경에 처한 아동의 적응이 부모가 경험하는 고통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왔다(Conway et al., 2013; Salloum, Stover et al., 2015). 따라서 연구자들은 역경 상황에서의 아동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부모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해왔다(Gewirtz, et al., 2008; Romero et al., 2020).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의 적응을 지지하기 위해 부모가 행하는 구체적인 양육 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편이다. 일부 연구들은 테러나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부모가 비극적 사건에 대해 자녀에게 말하는 방식이나 신체적 처벌과 같은 행동 양식이 아동의 적응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Kelly et al., 2010; Wilson et al., 2010). 한편, 팬데믹처럼 건강과 관련된 재난 상황에서 부모가 어떤 구체적인 양육 행동을 하는지, 양육 행동이 자녀의 행동 및 전반적 적응 상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더 적다(Romero et al., 2020).

재난 상황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듯이 아동은 팬데믹과 연관된 사건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성인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Norris et al., 200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가 아동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문화권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데,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 후베이성 아동의 경우 불안과 우울 수준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보다 유의하게 상승하였고(Xie et al., 2020)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격리를 겪은 아동이 격리 이전보다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짜증을 잘 내고, 안절부절하며, 걱정 및 외로움 수준이 늘었다고 보

고되었다(Orgilés et al., 2020).

긍정적인 부모 양육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이 시사하는 것처럼(Thomas & Zimmer-Gembeck, 2007), 가족은 아동의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역경 상황에서조차도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주요한 사회적 맥락이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가 재난과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고, 위협 요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지도하고, 정서적 지지를 보내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아동이 접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가족으로 제한되면서, 부모의 양육 방식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혹은 아동에게 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Romero 등(2020)은 코로나19에 따른 스페인의 장기적인 봉쇄 상황에서 나타난 아동의 정서 및 행동적 적응이 부모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지 변인 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스페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며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높았던 국가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시행하여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활동을 2주 이상 금지하였고, 아동들은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집 밖으로의 외출이 금지된 바 있다. Romero 등(2020)은 정부의 이러한 극단적인 제재 하에서의 부모의 정서적 반응 및 봉쇄 상황에서 요구되는 양육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다수의 아이들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품행 및 정서 문제를 나타내었고, 특히 부모가 코로나19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아동의 부

정적 적응과 전반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 결과는 봉쇄에 따른 스페인 부모들의 양육 고통 증가가 효과적인 양육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아동의 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안절부절하거나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과잉행동이 증가되었다고 보고되었지만, 흥미롭게도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거나 사회 지향적인 사고 및 행동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적응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서적으로 자녀를 위로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 행동들이 자녀의 긍정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경 상황에서도 아동이 어떤 양육을 받는지에 따라 긍정적인 적응 결과와 개인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듯 코로나19 위기가 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것에 비해 전체 가족 체계 관점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omero 등(2020)의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정서 반응, 스트레스 및 양육 고통이 구체적인 양육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 자녀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스페인만큼의 강한 봉쇄조치가 시행된 바는 없으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대유행 시기마다 여러 사업장 및 교육기관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특정 인원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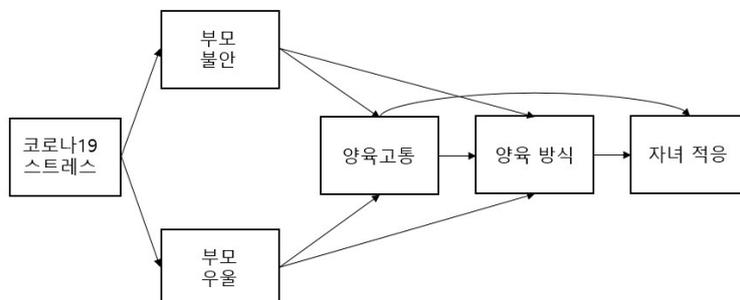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의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모의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주는가?

둘째, 부모의 불안과 우울은 부모의 양육 고통 및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주는가?

셋째, 부모의 양육 고통은 부모의 양육 방식, 아동의 부정적 적응 및 긍정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넷째, 부모의 양육 방식은 아동의 부정적 적응보다 긍정적 적응과 더 큰 관련이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강력했던 시기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으며, 만 19세 이상의 유자녀 부모님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온라인 설문업체인 DataSpring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

자들은 설문에 참여하기 전 본 연구에 대한 소개와 참여자의 권리와 안내 등이 포함된 설명문을 읽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설문 완료 시 보상으로 사례비 450원을 받았다.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의 수는 501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0.5세(SD = 2.89)이며, 30대 258명(41.7%), 40대 290명(58.1%), 50대 1명(0.2%)으로 분포하였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9명(7.8%), 대학교 졸업이 398명(77.6%), 대학원 졸업이 73명(14.6%)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 소득은 100만원 미만 4명(0.8%), 300만원 미만 54명(10.8%), 500만원 미만 189명(37.1%), 700만원 미만 158명(31.5%), 900만원 미만 69명(13.8%), 900만원 이상 30명(6%)으로 분포하였다. 자녀 수는 1명이 235명(46.9%), 2명이 244명(48.7%), 3명이 21명(4.2%), 4명 이상이 1명(0.2%)로 나타났다. 응답의 대상이 되는 첫째 자녀의 평균 연령은 8.5세(SD = 2.26)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 구체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코로나19 스트레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Romero 등(202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

표 1. 응답자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43	48.5
	여성	258	51.5
연령	30대	209	41.7
	40대	290	58.1
	50대	1	0.2
최종학력	고졸	39	7.8
	대졸	398	77.6
	대학원졸	73	14.6
월 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4	0.8
	300만원 미만	54	10.8
	500만원 미만	189	37.1
	700만원 미만	158	31.5
	900만원 미만	69	13.8
직업 유무	900만원 이상	30	6
	예	377	75.2
자녀 수	아니오	124	24.8
	1명	235	46.9
	2명	244	48.7
	3명	21	4.2
	4명 이상	1	0.2
코로나19 이후 가계 소득 감소 여부	예	200	39.9
	아니오	301	60.1
가족구성원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경험 유무	예	73	14.6
	아니오	428	85.4
가족구성원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경험 유무	예	255	50.9
	아니오	246	49.1

N = 501

당 척도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파생된 개인적인 스트레스, 가정의 경제적 상황,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을 이중언어 구사자가 번역 및 역번역한 후 전문가 소집단 토의 과정을 거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총 4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4점 척도(0 = 전혀 그렇지 않다, 3 = 거의 항상 그렇다)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응답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스트레스를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Romero 외(2020)의 연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6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9로 확인되었다.

부모 불안

부모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eck, Brown, Epstein과 Steer(1988)가 개발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Kwon(1992)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를 4점 척도(0 = 전혀 그렇지 않다, 3 = 거의 항상 그렇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문항 예로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뒹다’,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94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모 우울

부모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가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어판 CES-D를

사용하였다. 우울과 관련된 행동, 신체, 인지 증상을 포함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항에 4점 척도(0 = 전혀 그렇지 않다, 3 = 거의 항상 그렇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 예로는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93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육 고통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양육 고통을 평가하기 위해 Romero 등(202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파생된 규칙적인 양육, 학업 관리, 자유 시간 관리 및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을 이중언어 구사자가 번역 및 역번역한 후 전문가 소집단 토의 과정을 거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총 4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0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문항의 예시로는 ‘자녀를 공부 또는 숙제를 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녀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높은 수준의 양육 고통을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Romero 등(2020)의 연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6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확인되었다.

양육 방식

코로나19 상황 동안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시한 부모의 양육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Romero 등(202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15문항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 상황의 구체적인 양육 방식에 대하여 5점 척도 (0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척도가 Romero 등(2020)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4요인으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개 이상의 요인과 중첩되고 요인부하량이 0.5를 넘지 않는 문항을 제외한 11개의 문항을 4요인으로 배정하여 사용하였다(RMSEA = 0.07; CFI = 0.96; SRMR = 0.05). 첫 번째 요인은 회피적(avoidant) 양육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는 등의 회피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나는 자녀에게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위안적(soothing) 양육으로, 자녀를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안심시키려는 부모의 부드러운 태도를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자녀가 나의 불안감을 느낄 수 없도록 침착하려고 노력한다.”, “필요하다면, 나는 자녀를 포함한 우리 가족,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명한다.” 등이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체계적(structured) 양육으로, 자녀의 일상생활에 규칙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자녀를 위해 생활계획표나 활동 계획을 만든다.”, “나는 자녀가 매일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이 있다. 네 번째 요인은 초점적(focused) 양육으로, 자녀에게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자녀에게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할 예방 및 보호 조치(예. 손을 제대로 씻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준다.”, “나는 자녀가 코로나19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해주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각 요인에 대한 내적일치도는 회피적 .76, 위안적 .63, 체계적 .73, 초점적 .76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 적응

자녀의 부정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선별하는 도구인 SDQ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의 한국판 척도(안정숙 외, 2003)를 사용하였다. 과잉행동, 정서증상, 품행문제 각각에 대해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높았던 지난 한 달 동안 첫째 자녀가 보인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상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매우 그렇다’ 4점 평정하도록 하였다. 문항 예로는 과잉행동의 경우 ‘차분하지 않고, 부산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하다’, 정서증상의 경우 ‘걱정이 많고, 종종 근심스러워 보인다’, 품행문제의 경우 ‘다른 아이들에게 종종 싸움을 걸거나, 괴롭힌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과잉행동 .77, 정서증상 .80, 품행문제 .78이었다.

자녀의 긍정적 적응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적 변화가 자녀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Romero 등(2020)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학업, 친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의 긍정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을 이중언어 구사자 2인이

번역 및 역번역한 후 전문가 소집단 토의 과정을 거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Romero 등(2020)에서 총 14문항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4요인으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개 이상의 요인과 중첩되고 요인부하량이 0.5를 넘지 않는 문항을 제외한 10개의 문항을 4요인으로 배정하여 사용하였다(RMSEA = 0.05; CFI = 0.97; SRMR = 0.04). 본 측정 도구는 자녀가 한 명 이상일 경우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일과 관리(routine maintenance)로, 학교 과제 또는 계획된 일상에 대한 아동의 적응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규칙적인 스케줄 및 하루 일과에 잘 적응한다.”가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친사회적 참여(prosocial involvement)로, 친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에 관심을 보인다. 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불우이웃에게 성금 보내기”가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사회지향적 사고(social-oriented reflection)로, 사회지향적 개념과 태도와 관련된 변화를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우리를 위해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 및 다른 전문가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가 있다. 네 번째 요인은 사회적 유대(social bonding)으로, 주변 의미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자주 만나지 못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유지한다.”가 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0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다. 각 요인에 대한 내적일치도는 일과 관리 .79, 친사회적 적응 .75, 사회지향적 사고 .82, 사회적 유대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코로나19 스트레스	1														
2. 부모 불안	.54**	1													
3. 부모 우울	.61**	.77**	1												
4. 양육 고통	.47**	.28**	.38**	1											
5. 자녀 긍정적용 1)일과관리	.02	-.06	-.08	.10*	1										
6. 자녀 긍정적용 2)친사회적참여	-.02	-.03	-.11*	.00	.66**	1									
7. 자녀 긍정적용 3)사회지향적사고	.02	-.02	-.07	.10*	.60**	.64**	1								
8. 자녀 긍정적용 4)사회적 유대	.01	.04	-.09*	.07	.44**	.43**	.43**	1							
9. 자녀 부정적용 1)과잉 행동	.21**	.34**	.35**	.22**	-.41**	-.37**	-.37**	-.18**	1						
10. 자녀 부정적용 2) 정서 증상	.37**	.51**	.48**	.22**	-.15**	-.15**	-.16**	-.11*	.53**	1					
11. 자녀 부정적용 3) 품행 문제	.21**	.44**	.37**	.06	-.31**	-.28**	-.31**	-.06	.57**	.67**	1				
12. 초점적 양육방식	.11*	-.01	-.03	.21**	.49**	.47**	.50**	.30**	-.22**	-.15**	-.29**	1			
13. 위안적 양육방식	-.01	-.07	-.11*	.12**	.37**	.38**	.33**	.20**	-.23**	-.13**	-.25**	.51**	1		
14. 체계적 양육방식	.05	-.04	-.10*	.19**	.50**	.42**	.37**	.31**	-.17**	-.12**	-.20**	.60**	.44**	1	
15. 회피적 양육방식	.12**	.21**	.12**	.03	-.09*	.01	-.10*	.01	.18**	.33**	.36**	-.13**	.24**	.02	1
평균	2.23	1.59	1.95	3.55	3.56	3.35	3.58	3.24	2.64	2.12	1.97	3.76	3.50	3.36	2.89
표준편차	.66	.48	.51	.83	.66	.66	.78	.81	.72	.80	.64	.68	.68	.65	.79

* $p < .05$, ** $p < .01$

.66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가 자녀의 부정적 적응 및 긍정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부정적 적응과 긍정적 적응에 대한 모형은 별도의 종속변인을 사용하여 두 개의 분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즉, 첫 번째 분석은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자녀의 부정 적응만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고(모형 1), 두 번째 분석은 자녀의 긍정 적응만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모형 2). 본 연구는 SPSS 18.0과 Mplus 8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를 이용한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둘째,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 도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를 확인하였다. 셋째,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Mplus를 이용한 분석은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함으로써 개념 측정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가설에서 제시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인들 간의 경로모형을 만들고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RMSEA, CFI, SRMR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때, 아동의 성별, 월평균 가계 소득,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여부를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결 과

변인 간 상관 및 기술 통계치

주요 측정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의 부정적 적응 변인들 모두 코로나 19 스트레스, 부모 불안, 부모 우울, 양육 고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건강의 부정적인 측면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부정적 적응 또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 방식과 관련해서 자녀의 부정적 적응 변인들 모두 초점적, 위안적, 체계적 양육 방식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회피적 양육 방식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가 높은 수준의 초점적, 위안적, 체계적 양육 방식을 보일수록 자녀의 부정적 적응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긍정적 적응 변인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긍정적 적응 변인들 중 친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유대 변인이 부모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우울감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긍정적 적응이 저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 방식과 관련해서 자녀의 긍정적 적응 변인들 모두 초점적, 위안적, 체계적 양육 방식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회피적 양육 방식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 혹은 유의하지 않은 관계성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가 높은 수준의 초점적, 위안적, 체계적 양육 방식을 보일수록 자녀의 긍정 적응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Mplus 8

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녀의 부정적 적응에 대한 연구모형과 긍정적 적응에 대한 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긍정적 적응에 대한 모형 2의 적합도 지수는 RMSEA = .05, CFI = .99, TLI = .98, SRMR = .02를 나타내었다. Hu와 Bentler(1999)의 기준으로 CFI가 .95 이상이며 RMSEA는 .06 이하이므로 연구모형으로 적합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모형 2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를 사용하였고 표준화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종합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높은 수준의 부모 불안과 부모 우울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다시 부모의 양육 고통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이는 다시 위안적

양육 방식과 부적인 관계, 체계적 양육 방식과는 정적인 관계로 이어졌다. 특히 체계적 양육 방식은 자녀의 긍정 적응의 모든 하위 요인과 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적응에 대한 모형 1의 적합도 지수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RMSEA = .14, CFI = .93, TLI = .98, SRMR = .09로, 모형 1은 본 연구에서 최종모형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모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의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스트레스는 부모 불안($\beta = .74, p < .001$)과 부모 우울($\beta = .52, p < .001$)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로써 부모가 경험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 증상의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부모의 정서적 반응이 부모의 양육 고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부모 불안은 양육 고통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beta = .12, p < .05$), 양육 방식에 있어서는 회피적 양육 방식($\beta = .16, p < .01$)은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위안적($\beta = -.11, p$

표 3.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RMSEA (95% CI)	CFI	TLI	SRMR
모형 1	.14	.93	.98	.09
모형 2	.05	.99	.98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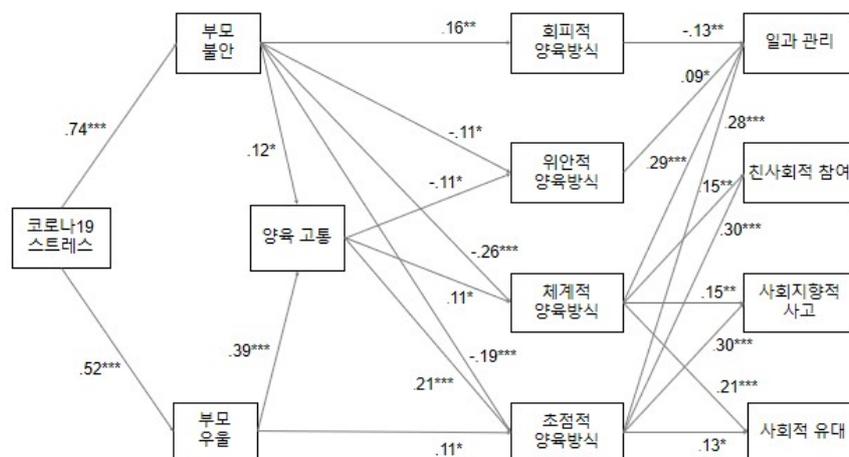


그림 2. 아동의 긍정적 적응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 .05), 체계적($\beta = -.26, p < .001$), 초점적($\beta = -.19, p < .001$) 양육 방식은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부모 우울 역시 마찬가지로 양육 고통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beta = .39, p < .001$), 초점적 양육 방식($\beta = .11, p < .05$)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경험하는 불안과 우울이 부모의 양육 고통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구체적 양육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2가 지지되었다.

부모의 양육 고통이 부모의 양육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 고통은 양육 방식에 있어서 위안적($\beta = -.11, p < .05$) 양육 방식은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체계적($\beta = .11, p < .05$), 초점적($\beta = .21, p < .001$) 양육 방식은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부정적 적응과 관련된 모형 1은 연구모형으로 적합한 수치를 나타내지 못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 고통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구체적 양육 방식과 아동의 부정적, 긍정적 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3이 일부 지지되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긍정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긍정적 적응 중 일과 관리는 회피적 양육 방식($\beta = -.13, p < .01$)에 의해 부적으로 예측되었고, 위안적($\beta = .09, p < .05$), 체계적($\beta = .29, p < .001$), 초점적($\beta = .28, p < .001$) 양육 방식에 의해 정적으로 예측되었다. 친사회적 참여는 체계적($\beta = .15, p < .01$), 초점적($\beta = .30, p < .001$) 양육 방식에 의해 정적으로 예측되었으며, 사회지향적 사고 역시 체계적($\beta = .15, p < .01$), 초점적($\beta = .30, p < .001$) 양육 방식에 의해 정적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대는 체계적($\beta = .21, p < .001$), 초점적($\beta = .13, p < .05$) 양육 방식에 의해 정적으로 예

측되었다. 반면, 부정적 적응과 관련된 모형 1은 연구모형으로 적합한 수치를 나타내지 못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구체적 양육 방식은 아동의 부정적 적응보다는 긍정적 적응 촉진과 더 큰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4가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정서 상태 및 양육 행동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 theory) 관점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 비롯된 부모 관련 변인과 아동 적응 간 연관성을 조사함으로써 팬데믹에서의 아동 적응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는 아동의 긍정적 적응 양상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반응 및 그로 인한 부모-자녀 간 일상적 상호작용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 이후의 상황에서 부모,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구체적 양육 방식 및 가족 환경을 통해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Cobham, et al, 2016), 부모와 자녀의 적응 관련 변인을 하나의 모형에 통합시킴으로써 코로나19 위기가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Romero 등(2020)이 제안한 개념적 틀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인해 부모들은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원과 위험 요인에 직

면하게 되어 이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진미정 등, 2020).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아이들의 학업 및 양육에 신경 쓰는 것은 부모가 불안과 우울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위기가 개인의 여러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임에도, 연구들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 바 있다. Lakhan 등(2020)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첫 7개월 동안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다른 16개의 연구를 리뷰하였는데, 중국, 인도, 스페인, 이탈리아, 이란에서 약 11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우울은 20%, 불안은 35%, 스트레스는 53%의 유병률을 보이며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불안과 우울은 부모의 양육 고통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구체적 양육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불안은 높은 수준의 양육 고통뿐만 아니라 높은 회피적 양육 및 낮은 위안적, 체계적, 초점적 양육으로 이어지며 네 가지 양육 방식 모두와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부모의 불안과 양육 방식의 전반적 연관성은 일반적인 부모 양육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는데, 불안 수준이 높은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따뜻함을 덜 보이고 자율성을 덜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녀의 불안 증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Drake & Ginsburg, 2011; Ginsburg et al., 2005).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구체적인 맥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불안도 자녀를 안심시키고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등 효과적인 양육 행동을 하지 못하

도록 막고 회피적인 양육을 하게끔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 고통은 구체적 양육 방식에 영향을 주었으나 Romero 등(2020)의 연구에서처럼 아동의 긍정적 적응 양상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았으며, 대신 부모의 양육 방식이 전반적으로 아동의 긍정적 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계적, 초점적 양육 방식은 자녀의 긍정적 적응 네 개 하위 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 연관성이 나타나 아동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잘 적응해나가는 것을 돕는 핵심적인 양육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자녀의 일상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인지적, 이성적인 양육 행동이 자녀로 하여금 역경 상황에서도 평소대로 생활하고 주변과 타인에 관심을 갖는데 특히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회피적 양육은 아동의 일과 관리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 아동에게라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피하고 숨기는 행동이 아동이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결과들을 종합하면, 재난 상황에서조차도 아동은 긍정적인 적응 양상을 보이는 동시에 사회적 연대감과 같은 심리적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이는 부모의 정서 상태와 양육 행동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아동의 부정적 적응에 대한 연구모형이 Romero 등(2020)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유효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가능성은 본 연구의 자료가 수집되었던 시기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아동의 과잉행동이나 품행 문제 촉발로 이어질 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Romero 등(2020)의 연구가 수행되었던 스페인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강한 봉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Bignardi 등(2020)은 2020년 4월에서 6월까지 봉쇄령이 내려졌던 영국 아동을 대상으로 우울감 및 심리적 부적응이 얼마나 점진적으로 증가했는지 탐색하는 종단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영국에서는 아동의 등교 금지는 물론이고 국민의 이동 제한 및 비 필수업종 휴업 등 강력한 봉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등교는 금지되었으나 긴급돌봄이라는 제도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고, 이동금지령과 같은 극단적인 국가적 제한이 시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아동이 처했던 상황은 상대적으로 압박이 적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차이로 인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부모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적응 간 연관성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보고된 아동의 부정적 적응 관련 변인들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점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부정적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반복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그렇기에 본 연구 결과는 비교적 약한 봉쇄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혹은 완화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비교하는 메타분석 연구에도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발생과 동시에 우리 삶의 여러 측면을 뒤바꾸어 놓았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여러 사회적 변화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문헌들은 부족하다(은기수, 2020; 정익중 외, 2020). 그중에서도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족과 어린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까

지 수행된 바 없으므로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 방향의 시발점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의 바람직한 양육 정책과 아동 교육 프로그램 수립 등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녕감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후속 연구들에서 보완하고 논의되어야 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모형은 모든 변인들에 대해 직접 효과의 순차적 패턴을 가정하여 설정되었지만, 횡단 설계를 이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변인 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부모와 자녀 변인 간 양 방향적 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가족 적응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종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단 설계는 코로나19 상황이 변화되며 부모와 아동의 적응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부모 본인이나 자녀의 코로나19 감염력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가까운 주변인의 상실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등 주요한 변인을 분석 시에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Mazza 등(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생존자를 대상으로 감염 이후의 상태를 추적하였는데, 이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 불안, 강박, 불면의 증상을 보고하였으며 절반 이상이 적어도 한 가지의 임상 차원에서 병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범주에 해당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의 감염 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서적 반응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 고려되어야 할 정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를 코로나 19의 경과나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방식 및 아동의 긍정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Romero 등(2020)의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하였으나, 해당 척도들은 스페인의 엄격한 봉쇄 상황에서의 부모의 구체적 양육 행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개발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자료가 수집되었던 시기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보다 넓은 범위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은 비단 코로나19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건강 관련 역경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속 연구를 통해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방식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가능해진다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의 아동의 발달 연구 및 실제 적용 방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안정숙, 전성균, 한준규, 노경선, Goodman R. (2003). 한국어판 강점·난점 설문지(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개발. **신경정신의학**, 42(1), 141-148.
- 은기수 (2020). 코로나 팬데믹과 자녀돌봄의 변화. **노동리뷰**, 188, 35-49.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6(1), 59-76.
-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
- 질병관리청 (20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외 발생현황.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2022.3.21. 검색)
- 최윤경 (2020). [이슈브리프] 코로나19와 아동 돌봄의 쟁점. **젠더리뷰**, 57, 63-69.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93-897.
<https://doi.org/10.1037/0022-006X.56.6.893>
- Bignardi, G., Dalmaijer, E., Anwyll-Irvine, A., Smith, T., Siugzdaite, R., Uh, S., & Astle, D. (2020). Longitudinal increases in childhood depression symptoms during the COVID-19 lockdown.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106(8), 791-797.
<http://dx.doi.org/10.1136/archdischild-2020-320372>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Jason Aronson: New York, NY, USA.
- Cobham, V., McDermott, B., Haslam, D., & Sanders, M. (2016). The role of parents, parenting and the family environment in children's post-disaster mental health. *Current Psychiatry Reports, 18*(6), doi: 10.1007/s11920-016-0691-4
- Conway, A., McDonough, S., MacKenzie, M., Follett, C., & Sameroff, A. (2013). Stress-related changes in toddlers and their mothers following the attack of September 11. *Th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3*(4), 536-544. <https://doi.org/10.1111/ajop.12055>
- Drake, K., & Ginsburg, G. (2011). Parenting practices of anxious and nonanxious mothers: A multi-method, multi-informant approach.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33*(4), 299-321. <https://doi.org/10.1080/07317107.2011.623101>
- Gewirtz, A., Forgatch, M., & Wieling, E. (2008). Parenting practices as potential mechanisms for child adjustment following mass trauma.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4*(2), 177-192. <https://doi.org/10.1111/j.1752-0606.2008.00063.x>
- Ginsburg, G., Grover, R., & Lalongo, N. (2005). Parenting behaviors among anxious and non-anxious mothers: Relation with concurrent and long-term child outcomes.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26*(4), 23-41. https://doi.org/10.1300/J019v26n04_02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Kelly, M., Self-Brown, S., Le, B., Bosson, J., Hernandez, B., & Gordon, A. (2010). Predicting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children following Hurricane Katrina: A prospective analysis of the effect of parental distress and parenting practic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3*(5), 582-590. <https://doi.org/10.1002/jts.20573>
- Kwon, S-M. (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Ph. D. Thesis submitted to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Lakhan, R., Agrawal, A., & Sharma, M. (2020). Prevalence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during COVID-19 pandemic. *Journal of Neurosciences in Rural Practice, 11*(4), 519-525. Doi: 10.1055/s-0040-1716442
- Mazza, M., Loreanzo, R. Conte, C., Poletti, S., Vai, B., Bollettini, I., Melloni, E., Furlan, R., Ciceri, F., Rovere-Querini, P.,

- COVID-19 BioB Outpatient Clinic Study Group, & Benedetti, F., (2020). Anxiety and depression in COVID-19 survivors: Role of inflammatory and clinical predictors. *Brain, Behavior, and Immunity, 89*, 594-600.
<https://doi.org/10.1016/j.bbi.2020.07.037>
- Norris, F., Friedman, M., Watson, P., Byrne, C., Diaz, E., & Kaniasty, K. (2002). 60,000 disaster victims speak: Part I. An empirical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1981-2001. *Psychiatry, 65*(3), 207-239.
<https://doi.org/10.3389/fpsyg.2020.579038>
- Orgilés, M., Morales, A., Delvecchio, E., Mazzeschi, C., & Espada, J. (2020). Immediate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COVID-19 quarantine in youth from Italy and Spain. *Frontiers in Psychology, 11*, 579038.
<https://doi.org/10.1037/amp0000660>
- Prime, H., Wade, M., & Browne, D. (2020). Risk and resilience in family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 Psychologist, 75*(5), 631-643.
<https://doi.org/10.1080/15374416.2010.486317>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mero, E., López-Romero, L., Domínguez-Álvarez, B., Villar, P., & Gómez-Fraguela, J. (2020). Testing the effects of COVID-19 confinement in Spanish Children: The role of parents' distress, emotional problems and specific paren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9), doi: 10.3390/ijerph17196975
<https://doi.org/10.1007/s10826-014-9928-1>
- Salloum, A., Stover, C., Swaidan, V., & Storch, E. (2015). Parent and child PTSD and parent depression in relation to parenting stress among trauma-exposed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5), 1203-1212.
<https://doi.org/10.1007/s10802-007-9104-9>
- Thomas, R., & Zimmer-Gembeck, M. (2007). Behavioral outcomes of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and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3), 475-495.
<https://doi.org/10.1080/15374416.2010.486317>
- Wilson, A., Lengua, L., Meltzoff, A., & Smith, K. (2010). Parenting and temperament prior to September 11, 2001, and parenting specific to 9/11 as predictors of children's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following 9/11.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9*(4), 445-459.
<https://doi.org/10.1080/15374416.2010.486317>
- Wang, C., Pan, R., Wan, X., Tan, Y., Xu, L., Ho, C., & Ho, R. (2020). Immediate psychological responses and associated

factors during the initial stage of the 2019 Coronavirus Disease (COVID-19) epidemic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5), 1729 DOI: 10.3390/ijerph17051729

Xie, X., Xue, Q., Zhou, Y., Zhu, K., Liu, Q., Zhang, J., & Song, R. (2020). Mental health status among children in home confinement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outbreak in Hubei Province, China. *JAMA Pediatrics*, 174(9), 898-900. doi:10.1001/jamapediatrics.2020.1619

Children's Adjustment i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Parents' Emotional States and Parenting Practices

Jung Yun Lee¹ Woo-yeol Lee² Hyun-joo Song³ Minjung Cha¹

Institution of Socialomics, Yonsei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¹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²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Professor³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arents' emotional states and parenting practices on children's adjustment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Children's negative outcomes (e.g., conduct problems) and positive outcomes (e.g., routine maintenance) and parent-related variables (e.g., perceived distress resulting from the COVID-19 crisis, anxiety, depression, parenting distress, and specific parenting practices) were measured. Participants (n=501) completed an online questionnaire between January and April 2021, during the most restrictive period of social distancing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results indicated that perceived distress resulting from the COVID-19 crisis, anxiety, depression, parenting distress, and specific parenting practices affected children's positive outcom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dditionally, focused and structured parenting was specifically related to children's positive adjust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have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programs that support children's well-being in the COVID-19 pandemic and other health-related crise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also discussed.

Keywords : COVID-19, anxiety, depression, parenting distress, parenting practice, child adjustment